환경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7. 11.(금) 10:00 배포 2025. 7. 10.(목)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 확대 개편

- 주민 불편 심했던 인천 계양산 러브버그 대발생 현장 수습 완료
- 협력 기관 확대(서울→경기, 인천 추가), 전문가 참여 등 대응체계 강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7월 11일 오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 (1차 회의 주요 논의사항) 지자체별 러브버그 방제, 사체 처리 등 관리 현황 및 관리 방법 논의, 국립생태원·국립공원공단 등 관련 기관 협력 확대 등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 협력 체계를 한층 보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러브버그 및 동양하루살이, 대벌레, 깔따구 등 대발생 가능성이 있는 곤충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현황과 기관별 대응 체계를 공유하고, 대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점검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은 대발생 잠재 곤충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현황, 방제 기술 및 요령 등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은 외래종 유입 현황을 공유하고 국립공원 내에서 일부 곤충이 대발생할 경우 현장 안전 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심했던 인천시 계양산에 환경부 소속 인력을 파견하고 광원 활용 포충기, 포충망 등 방제장비를 긴급 투입하여 현장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 (파견 인력) 환경부 및 소속기관 114명, 청소 용역업체 40명, (투입 장비) 광원 포충기 12대, 포충망 10기

계양산은 유례없는 러브버그 대발생으로 인해 등산로 및 정상부 일대에 사체가 쌓이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심했다.

환경부는 인천시 계양구청과 협업하여 방제, 사체 수습 및 청소를 실시했으며, 현재는 러브버그 사체 잔재물 제거 등 현장 수습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수도권 러브버그 대발생은 7월 초를 기점으로 소강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7월 중순에는 전국적으로 대발생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과거 곤충 대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7월 이후에도 러브버그 외 다른 곤충*들이 언제든 대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24시간 가동하는 비상대응 대책반을 지속 운영하여 대발생 상황 초기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주요 대발생 곤충)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깔따구, 미국선녀벌레 등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올해 계양산의 러브버그 사례처럼 곤충 대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라며, “곤충 대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점을 개선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도적 개선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인천 계양산 러브버그 방제, 사체처리 등 현장지원 결과.
2. 대발생 잠재 곤충 특성 및 과거 피해 사례.
3.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대응 관계기관 회의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7245)
		담당자	사무관	이예슬 (044-201-724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계양산 러브버그 방제, 사체처리 현장지원 결과**

□ 지원 개요

○ **(기간)** ’25. 7. 4.(금) ~ 7. 11. (금) ※ 주말(토·일) 포함

○ **(장소)** 인천광역시 계양산(계양구 계산동)

○ **(인원)** 환경부 및 소속기관* 114명, 청소 용역업체 40명

* 본부, 국립생물자원관,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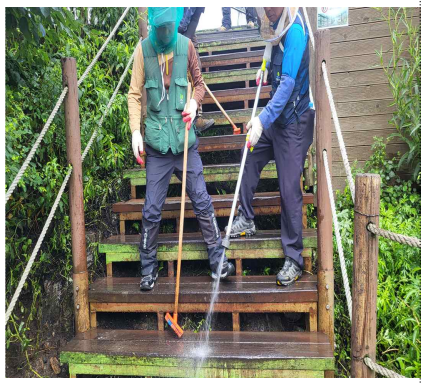
○ **(작업 사항) 물리적 방제 및 사체 처리**

- **(방제)** 포충망(10개)을 활용하여 활동중인 러브버그 성체 제거
- **(장비 투입)** 광원 포충기 12대 신규 설치
- **(사체처리)** 송풍기, 빗자루 등 활용, 현장에 방치된 성체 사체처리

□ 지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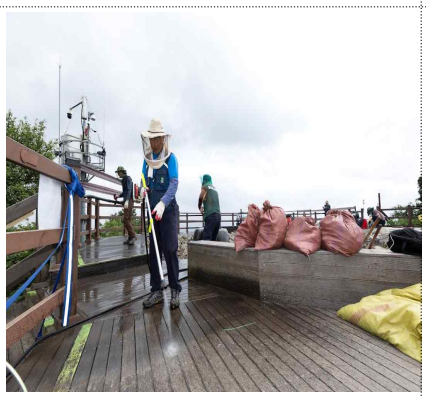
<현장 작업>

포충망·포충기 활용 방제



살수 등 청소작업

현장 점검



<작업 결과>

작업 이전

작업 이후

붙임2 **대발생 잠재 곤충 특성 및 과거 피해사례**

구분	사 진	유형 및 피해 정보
대벌레	 <대벌레 수컷(청계산)>	• **(유 형)** 자생종 • **(피해지역)** 서울 은평구, 경기도 고양·군포·하남시 등 • **(피해사례)** '14년도 이후, 도심내 대발생하여 식엽에 의한 손상 등 불편 유발
붉은등우단털파리 ※ (별칭) 러브버그		• **(유 형)** 외래종 (중국) • **(피해지역)** 북한산 인근 등 수도권 서부 • **(피해사례)** '22년 이후, 도심내 대발생하여 주민 불편 유발
깔따구류		• **(유 형)** 자생종 • **(피해지역)** 전국 • **(피해사례)** '20년 이후 수돗물 유충 발견으로 인한 불편 유발, 성충은 수변 지역에 집중 발생
동양하루살이 ※ (별칭) 팅커벨		• **(유 형)** 자생종 • **(피해지역)**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남양주, 세종시 일대 등 • **(피해사례)** '06년 서울 강동구에서 대발생한 이후, 주민 불편 유발
미국선녀벌레		• **(유 형)** 외래종 (미국) • **(피해지역)** 전국 (생태계교란종 지정, 2020) • **(피해사례)** '11년도 이후, 농작물 및 식물 흡즙을 통해 발육 저해, 시들음 등 피해 유발

붙임3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대응 관계기관 회의 개요**

□ 추진 배경

○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이 확산**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심화**되는 등 **체계적 대응 필요성 대두**

○ 최근 문제가 된 러브버그(6월 중순~7월초) 뿐 아니라, **과거 대발생 사례가 있는 잠재종*에 대비**한 대응 체계 점검 및 대응 방안 논의

* (주요 곤충) 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깔따구, 미국선녀벌레 등

□ 회의 개요

○ **(일 시)** : ’25. 7. 11.(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KTX 1호실(지상 4층)

○ **(참 석)**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국립생물자원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전문가(서울대학교, 삼육대학교) 등

○ **(주요 논의내용)** : 러브버그 등 곤충대발생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 진행 순서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0:00 ~ 10:05	5′	참석 기관 소개	환경부
10:05 ~ 11:55	20′	곤충대발생 대응 체계 개선 등 향후 대응 방안	환경부
	20′	대발생 민원 및 현장 대응 현황	지자체별
	70′	의견제안 및 자유토론	참석자
11:55 ~ 12:00	5′	논의 내용 종합	환경부